

〈일반논문〉

‘레이건 민주당원’의 형성: 1970년대 이후 미국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에 관한 아래로부터의 역사*

이 찬 행 **

〈목차〉

- I. 머리말
- II. 맥거버니즘과 북부로 간 레드넥
- III. 세금 반란과 서부로 간 레드넥
- IV. 맺음말

[국문초록]

미국 현대사는 이중적인 시기이다. 한편으로 민권운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아젠다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흐름이 점점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후자의 역사에 주목한다. 특히, 본 논문은 1960년대까지 리버럴한 정치 세력으로 간주되던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를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두 가지 사안, 즉 맥거버니즘과 세금 반란을 검토한다. 197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은 당의 전통적인 복지 정책, 즉 백인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던 정책을 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2069610).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조교수

수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맥거번은 “신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흑인, 여성, 동성애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체성 정치”와 연대했는데, 이는 백인 노동계급이 민주당을 이탈하면서 보수주의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말았다. 백인 노동계급의 분노는 세금과도 직결되었다. 1978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13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제안은 인종과 무관하며 단순히 재산세 인하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발의안은 궁극적으로 흑인들을 위한 정책에 자신들이 낸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심리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세금 반란은 경제적 개인주의 언어를 통해 공공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의 확장에 분명한 반대를 표시함으로써 1980년대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내러티브를 제공했다.

□ 주제어

레이건 민주당원, 미국 백인 노동계급, 레드넥, 맥거버니즘, 주민발의안 13

I. 머리말

‘레이건 민주당원’이란 1960년대까지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분류되던 백인 노동계급이 1970년대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1980년과 198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게 된 현상을 일컫기 위해 고안된 용어이다.¹⁾ ‘레이건 민주당원’은 1993년 민주당 정권의 출범과 함께 사라진 것

1)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레이건 민주당원’이라는 용어는 정치 분석가인 스탠리 B. 그린버그가 1980년과 1984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린버그가 ‘레이건 민주당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시건주의 서버브 매콤카운티(Macomb County)의 정치적 변화이다. 백인 노동계급 지역으로 알려진 매콤카운티의 주민들은 민주당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덕분에 중산층이 된 사람들로서 민주당의 뉴딜연대(New Deal Coalition)를 지지해왔다. 하지만 매콤

럼 여겨졌으나, 지난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보수화된 백인 노동계급의 귀환이 낳은 결과로 해석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²⁾ 본 연구는 백인 노동계급이 이처럼 ‘레이건 민주당원’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아래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below)라는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레이건 민주당원’의 형성으로 귀결되는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위로부터의(from above)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자로는 토마스 B. 에드설 및 그의 아내 매어리 D. 에드설 그리고 역사가 댄 T. 카터를 꼽을 수 있다. 에드설 부부가 쓴 『연쇄반응』(*Chain Reaction*, 1993)은 백인들이 민주당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느꼈던 분노와 불만을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원했는지를 위로부터의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³⁾ 그들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가 인종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백인 노동계급은 이를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키웠다.⁴⁾ 공화당 정치인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카운티 백인 주민들은 60년대 중반 이후의 연방정부 정책, 특히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들에 반발하면서 점차 보수의 아성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들은 클린턴이 집권하던 시기에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Steve Fraser, *The Limousine Liberal: How an Incendiary Image United the Right and Fractured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2016; Stanley B. Greenberg, “Goodbye, Reagan Democrats,” *New York Times*, November 10, 2008.

2) 이찬행, 「2016년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역설」, 『역사비평』 120, 2017, 161~193쪽.

3) Thomas B. Edsall and Mary D. Edsall, *Chain Reaction: The Impact of Race, Rights, and Taxes on American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1992.

4) 백인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캘리포니아대학을 상대로 한 앨런 바키의 소송(*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1978)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초반 데이비스 캘리포니아(UC Davis) 의과대학은 인종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16퍼센트를 소수 인종에 배정하는 특별 전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미네소타대학을 졸업한 뒤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는 백인 학생 바키는 데이비스 의과대학에 두 차례나 지원했지만 거듭

위해 이러한 백인의 분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교묘하게 자극하기도 했다. 에드설 부부의 해석은 결국 백인 노동자들의 우경화 현상을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주도한 인종정치의 결과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위로부터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부 정치사를 전공한 카터는 조지 윌리스라는 인물에 주목하면서 백인의 분노가 형성되는 구체적 과정을 연구하였다. 1963년 연방정부는 남부의 인종차별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앨라배마대학교 터스컬루사 캠퍼스에 흑인 학생들을 입학시키려고 했다. 한때 “입에 거품을 무는 [인종]분리주의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윌리스 앨라배마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카터는 이를 근거로 윌리스가 비(非)인종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남부의 백인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보수적인 세력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한다.⁵⁾ 하지만 카터의 연구 역시 『연쇄반응』과 마찬가지로 백인 노동계급을 정치적 선동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는 점에서 위로부터

낙방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송에서 그는 특별전형 때문에 자신보다 낮은 학점, 낮은 시험 성적을 지닌 유색인종 학생은 합격하고 자신은 떨어졌다면서 캘리포니아대학의 입학생 선발 정책은 1964년 민권법과 헌법 수정조항 14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키 소송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78년 내려진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합헌이지만 인종 할당제는 위헌이라면서 바키를 입학시키도록 명령했다. Howard Ball, *The Bakke Case: Race, Education, and Affirmative Action*,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Adam Harris, “The Supreme Court Justice Who Forever Changed Affirmative Action,” *Atlantic*, October 13, 2018.

- 5) Dan T. Carter, *From George Wallace to Newt Gingrich: Race in the Conservative Counterrevolution, 1963~1994*,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Dan T. Carter, *The Politics of Rage: George Wallace, the Origins of New Conservat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13 [1995].

터의 역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⁶⁾

이상과 같은 위로부터의 연구는 1970년대 이래 진행된 새로운 정치 환경을 파악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정작 그와 같은 연구에서는 백인 노동계급이 대상화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부재하기 일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레이건 민주당원’으로 귀결되는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를 위로부터 가해지는 정치적 선동의 소산물이 아니라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백인 노동자들의 인식과 대응의 결과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자는 70년대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 즉 맥거버니즘으로 상징되는 70년대 초반 민주당의 정치적 변화와 1978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세금 반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레이건 민주당원’ 탄생의 비밀스러운 역사 가운데 한 대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⁷⁾

II. 맥거버니즘과 북부로 간 레드넥

19세기 후반 미시시피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레드넥(redneck)은 남부의 상류층이 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인 남성 노동자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경멸적 용어다. 뜨거운 태양 아래

6)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사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찬행, 「미국 우파에 대한 역사서술의 궤적」, 『서양사론』 129, 2016, 104~140쪽.

7) ‘레이건 민주당원’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인종분리 철폐, 낙태 합법화 등에 대한 백인 노동계급의 반발과 학교에서의 기도 금지 등을 계기로 한 복음주의적 제국(evangelical empire)의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에서 목뿔이 뿔길게 탈 정도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남부 농업지역의 백인 노동자 레드넥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민권운동을 반대하는 수구적인 인종주의자와 동격이었다. 남부에서 인종주의가 20세기 중반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뉴딜에서 찾을 수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뉴딜은 루스벨트 행정부가 남부 민주당원들과 체결한 이른바 “파우스트”(Faustian) 계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루스벨트가 이처럼 악마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930년대 뉴딜에 대한 남부 백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만연하고 있던 인종분리에 도전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사는 이러한 레드넥의 북부 이주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⁹⁾ 남부적인 현상으로만 이해되었던 레드넥이 북부로 확산된 것이다. 달리 말해, 인종차별과 먼 것처럼 보였던 북부의 백인 노동계급이 70~80년대 미국 정치사 무대에서 인종주

8) Jefferson Cowie, *The Great Exception: The New Deal and the Limits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pp. 124~125; Ira Katznelson, *Fear Itself: The New Deal and the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Liveright, 2013, p. 486.

9) 레드넥의 북부 이주와 함께 레드넥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60년대까지 남부의 무지하고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뜻했던 레드넥은 스스로를 한편으로는 상류층과 차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언더클래스와 구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레드넥은 자신의 정체성을 근면하고 애국적인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멸적인 레드넥을 정치적인 레드넥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Tasha R. Dunn, *Talking White Trash: Mediated Representations and Lived Experiences of White Working-Class People*, New York: Routledge, 2018; Patrick Huber, “Rednecks,” *Mississippi Encyclopedia*, April 15, 2018; Matthew J. Ferrence, *All-American Redneck: Variations on an Icon, from James Fenimore Cooper to the Dixie Chicks*,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2014; Patrick Huber, “A Short History of Redneck: The Fashioning of a Southern White Masculine Identity,” *Southern Cultures*, Vol. 1, No. 2 (Winter 1995), pp. 145~166.

의적이고 보수적인 레드넥 역할을 맡은 셈이다.

그렇다면,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를 낳은 레드넥의 이주에서 주요한 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른바 맥거버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맥거버니즘이란 원래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에게 대패했던 민주당 후보 맥거번을 겨냥해 고안된 것으로서 주로 보수적인 공화당원과 보수적인 민주당원이 경쟁자의 유약함, 특히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나약함을 비웃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¹⁰⁾ 하지만 맥거버니즘은 단순히 외교와 국방 영역에서만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맥거번이 개혁과 신정치(New Politics)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백인 노동계급의 혁신에 대한 불만과 민주당 이탈,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민주당 지지 기반의 균열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격변을 뜻하기도 한다.¹¹⁾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좌파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맥거번은 1953년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에서 20세기 초반 콜로라도 석탄 노동자 파업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노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¹²⁾ 전문 역

10) Bruce Miroff, *The Liberals' Moment: The McGovern Insurgency and the Identity Crisis of the Democratic Party*,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7, pp. 1~2.

11) 맥거번의 신정치와 뉴레프트 사이에는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노동계급이 더 이상 사회운동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있어 신정치는 뉴레프트와 유사했다. 하지만 뉴레프트가 진보적인 학생, 억압받는 인종, 문화적인 소수 등을 기반으로 혁명을 추구했다면, 신정치는 이와 달리 선거를 통한 개혁을 지향하였다. Benjamin Ross, "Democratic Misalliances," *Dissent*, Spring 2003.

12) Jefferson Cowie, *Stayin' Alive: The 1970s and the Last Days of the Working Class*, New York: New Press, 2010, p. 6, 86. 맥거번의 박사논문 제목은 "The Colorado Coal Strike, 1913~1914"이다. 한편, 맥거번은 종종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와 비교되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Derek Thompson, "Bernie Sanders Is George McGovern," *Atlantic*,

사가로서 맥거번은 또한 미국의 도발이 소련으로부터 불필요한 분노를 낳았기에 냉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좌파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¹³⁾ 이처럼 진보적인 정치인 맥거번은 민주당 지지 기반의 변화를 거론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다. 맥거버니즘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치적 지각 변동은, 돌이켜보면 맥거번의 의도와는 다소 달리, 백인 노동자들과 민주당 사이의 오래된 연대를 깨뜨리면서 결국 전자가 보수주의 언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를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0여 년 동안 미국의 경제는 대량생산에 기반한 전대미문의 확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본 합의”라는 엔진이 존재했다. 전후 자본의 축적에 필수적이었던 이 합의에 따라 노동은 수익성과 시장을 자원 배분의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급진성과 전투성을 상실했으나, 반대급부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과 노동조합의 권리들을 얻어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과 순응을 수반하였지만, 합의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했다.¹⁴⁾ 백인 노동계급은 이러한 사다리를 독점한 주요 세력이었

February 21, 2020; Joshua Mound, “What Democrats Still Don’t Get about George McGovern,” *New Republic*, March 1, 2016.

13) Ronald Radosh, *Divided They Fell: The Demise of the Democratic Party, 1964~1996*, New York: Free Press, 1996, p. 159.

14) Allen Hunter, “The Role of Liberal Political Culture in the Construction of Middle America,”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Vol. 93, No. 1 (1987), pp. 102~103. “노동-자본 합의” 담론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는 넬슨 리히텐슈타인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는 만약 노동과 자본 사이에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상호 간에 이루어진 협약(concordat)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이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내적 분열을 겪던 시기에 위로부터 강제된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elson Lichtenstein, *State of the Union: A Century of American Labo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다. 전문적인 기술과 충분한 학력이 없어도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들은 나아가 루스벨트와 트루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공화당이 집권했던 50년대 아이젠하워 시기에도 수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의회에 입성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¹⁵⁾ 바로 이들 백인 노동계급이 60년대 중후반까지 뉴딜 연대의 한 축으로서 민주당 지지 세력의 핵심으로 기능했다면, 다른 한 축은 민주당 구파(Old Democrats)가 떠받들고 있었다. 뉴딜시기에 형성되었던 구파는 대공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정치철학은 정부의 지출을 통해 대응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도덕을 존중했으며, 인종주의를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뉴딜연대로 결합된 민주당 구파와 백인 노동계급은 상호의존적이었다. 민주당 구파는 정치적인 지원을 위해 백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했으며, 백인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국가 확대와 같은 구파의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이다.¹⁶⁾

60년대 말부터 “블루칼라 블루스”(Blue-Collar Blues)가 연주되면서 노동과 자본 사이의 합의에 기반한 미국 경제는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더는 향상되지 않았으며, 노조 가입률은 대폭 감소하고 있었다.¹⁷⁾ 물론 6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소득의 성장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득 증가분은 대부분 야간 부업 확대 및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한 결과였다. 실제로 1960년에는 백인 노동계급 기혼여성 가운데 33퍼센트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 수치가 70년에는 44퍼센트로 증가

Press, 2002, pp. 98~99.

15) Alan Abramowitz and Ruy Teixeira, “The Decline of the White Working Class and the Rise of a Mass Upper-Middle Clas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24, No. 3 (Fall 2009), pp. 399~400.

16) Abramowitz and Teixeira, “The Decline of the White Working Class,” pp. 399~400.

17) Hunter, “The Role of Liberal Political Culture,” pp. 111~112.

하였다. 민권운동을 배경을 한 흑인들의 취업률 증가 역시 백인 노동자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었다. 60~70년 사이 블루칼라 직업에 종사하는 흑인은 42퍼센트 증가했으나, 백인의 증가율은 고작 7퍼센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백인 노동계급에게는 주택이 그들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가장 커다란 몫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흑인의 이주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염포를 놓으면서 집을 빨리 처분하라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블록버스팅(blockbusting)은 재산 가치의 하락을 불러오기 십상이었다.¹⁸⁾ 백인 노동자의 애가(哀歌)는 대량생산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쇠퇴하면서 더욱 애잔해졌다.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에 따라 무엇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반이었던 블루칼라층이 축소되고, 반대로 노동계급과는 상이한 요구를 지닌 새로운 집단들과 새로운 운동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전에는 커다란 차고와 일자리 등이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깨끗한 공기와 물, 자동차 안전, 남녀평등, 흑백평등이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자연스레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민권운동, 여성운동 등이 활발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들을 당의 지지 세력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맥거번을 필두로 한 신구파(New Old Democrats)이다. 신구파는 뉴딜 복지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진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기존의 이상에 다양한 새로운 운동들을 이식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64년 존슨이 민권법에 서명한 이후 8년 동안 이른바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과 관련된 활동가들에게 당내 중요한 지위를 제공했다.¹⁹⁾

18) Leonard S. Silk, "The Blue-Collar Blues," *New York Times*, September 9, 1970.

19) Abramowitz and Teixeira, "The Decline of the White Working Class," pp. 399~400.

조지 맥거번(왼쪽)과 케네디 행정부 부통령 린든 B. 존슨
Executiv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1962년 10월 25일



출처: ST-459-1A-62,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Photo Credit: Cecil Stoughton, White House Photographs,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Boston.

신사회운동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친구파의 등장은 백인 노동계급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음을 뜻했다. 맥거버니즘은 이러한 정치적 질서의 변화를 두 차례에 걸쳐 더욱 밀어붙임으로써 백인 노동계급의 입지를 축소시켰다. 첫 번째 계기는 69년에 출범한 맥거번-프레이저위원회(McGovern-Fraser Commission)다. 이 위원회는 68년 8월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뽑어져 나왔던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저항,²⁰⁾ 그리고 68년

20) 1968년 8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의 비민주성을 잘 보여주었다. 68년 초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치인은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뉴욕주 상원의원 로버트 케네디, 베트남전쟁에 반대했던 미네소타주 상

11월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를 경험한 뒤 당의 구조와 대의원 선발 과정을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거에서의 승리와 효율적인 과정을 위해 정당의 전문가 집단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당의 유권자들이 민주적으로 이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맥거번-프레저위원회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모든 주가 당에서 정한 단일한 과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8년 선거에서 위스컨신, 오레건,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은 프라이머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을 결정했으나,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주에서는 이러한 연관이 불명확했다. 심지어 35개 주에서는 유권자의 참여 없이 지명에 의해 대의원 선발이 이루어지고

원의원 유진 매카시, 그리고 존슨 행정부의 부통령 휴버트 험프리카다. 하지만 그 해 6월 케네디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primary)에서 승리한 뒤 그의 친이스라엘 행보에 앙심을 품은 팔레스타인계 이민자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을 당하고 만다. 노동계의 지원을 받았던 험프리카는 68년 3월 존슨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제 막 선거 운동을 시작했을 뿐 아직 프라이머리에 제대로 진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존슨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와 오랫동안 민주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험프리카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프라이머리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와 베트남전쟁 옹호 입장에 분개한 청년들은 시카고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뉴레프트 계열인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과 달리 애비 호프만과 제리 루빈 등이 조직한 급진적인 무정부주의 단체 국제청년당(Youth International Party 혹은 Yippie)은 “불멸의 피가수스”(Pigastus the Immortal)라는 이름의 돼지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함으로써 기성 정치권을 조롱하였다. Olivia B. Waxman, “Violence Was Inevitable’: How 7 Key Players Remember the Chaos of 1968’s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Protests,” *Time*, August 28, 2018; Katie Reilly, “Calls to Reform Democratic Nomination Process Have Roots in 1968 Convention,” *Time*, July 25, 2016; John C. McWilliams and Paul Vioti, *The 1960s Cultural Revolu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0.

있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대통령 후보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개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¹⁾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과 전략을 담당한 자는 로버트 케네디 선거 운동을 관리하기도 했던 프레드 더튼이었다. 바로 이 더튼의 살생부가 민주당과 백인 노동계급의 오래된 관계를 끊는 데 적잖이 주효했다. 왜냐하면 그는 민주당의 문제가 노동조합 및 백인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 있다고 파악하면서 앞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명할 때 조직된 노동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새로운 연대, 즉 흑인, 페미니스트, 대학을 졸업한 부유한 백인으로 구성된 연대가 당의 미래라고 강조하였다. 더튼의 전략은 루스벨트가 1930년대 만든 뉴딜연대의 한 축이었던 백인 노동계급을 축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²²⁾

두 번째 계기는 7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맥거번의 신정치였다. 맥거번은 근본적으로 뉴딜연대의 이상인 사회복지 국가를 포기하진 않았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엘리트에 대한 분노와 인종주의를 자극함으로써 백인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던 월리스를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없지는 않았지만, 부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고 갖지 못한 자들(the have-nots)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뉴딜에 충실한 결과였다. 나아가 연방기금을 활용하여 중산층 이하의 미국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매해 성인에게 1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데모그랜트”(demogrant) 계획은 사우스다코타 출신인 그에게서 루스벨트의 모습을 읽을 수 있게끔 했다. 하지만 신정치에는 또 다른 트랙이

21) Louis Sandy Maisel and Mark D. Brewer, *Parties and Elections in America: The Electoral Process*,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8, pp. 275~276.

22) Matt Stoller, *Goliath: The 100-Year War Between Monopoly Power and Democracy*, New York: Simon & Schuster, 2019, p. 324.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3년 전에 있었던 맥거번-플레이저위원회와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맥거번은 유색인종 소수계, 여성, 청년을 위한 수호자였다. 뉴딜연대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했지만, 맥거번은 동시에 60년대 중반 이후 등장했던 다양한 신사회운동, 즉 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라고 폄훼한 운동과 뜻을 같이했다.²³⁾ 심지어 그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에서 험프리를 누르기 위해 동성애자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에 호응하여 “맥거번을 지지하는 동성애자 시민”(Gay Citizens for McGovern)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맥거번 지지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벌이기도 했다.²⁴⁾ 맥거번의 신정치는 한편으로는 흑인의 지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화이트칼라층을 비롯해 새로운 세력들을 민주당으로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의 권력 브

23) Miroff, *The Liberals' Moment*, p. 4; Mound, “What Democrats Still Don't Get about George McGovern”; Jon Wiener, “Whatever Happened George Wallace?” *Dissent*, Summer 1977, pp. 236~240. 신사회운동으로, 궁극적으로는 60년대 민권운동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는 정체성 정치는 여성, 유색인종, 동성애자 등과 같은 소수 집단의 의식을 일깨우고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74년 보스턴에서 구성된 흑인/페미니스트/레즈비언/사회주의 단체인 커비리버컬렉티브(Combahee River Collective)가 주장하듯이, “가장 심오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정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인식이 정체성 정치의 핵심이다. Marianne DeKoven, *Utopia Limited: The Sixties and the Emergence of the Postmoder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p. 250; Steven Best and Douglas Kellner, *The Postmodern Turn*, New York: Guilford Press, 1997, p. 273.

24) “Gay Citizens for McGovern” (FMPP-019-001-p0042), Frank Mankiewicz Personal Papers, George McGovern 1972 Campaign,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하지만 맥거번은 본선에서 닉슨 측의 공격을 우려한 탓에 동성애자 집단으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었다. 그 결과 동성애자 권리가 민주당 공식 강령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8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야만 했다. Vicki Eaklor, Robert R. Meek, and Vern L. Bullough, *Bringing Lesbian and Gay Rights into the Mainstream: Twenty Years of Progress*, New York: Routledge, 2006, p. 59.

로커 입장에서 “60년대의 야만인들”을 받아들여려는 것으로 비추어졌다.²⁵⁾ 특히, 노동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위상을 침해하는 신정치는 치러야 할 몫이 컸다. 왜냐하면 그것은 백인 노동계급의 민주당 이탈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결과가 입증하듯이 신정치에 반발한 백인 노동자들이 보수주의 세력의 언어에 적극적으로 공명하면서 레드넥으로 변신할 준비를 갖추도록 했기 때문이다.²⁶⁾

25) Cowie, *Stayin' Alive*, pp. 86~88.

26) 선거에서 맥거번은 이중의 공격을 당했다. 첫째,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인 험프리는 맥거번의 “데모그랜트” 공약이 결국 중산층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험프리의 이러한 공격은 근거가 희박했으나, 결국 닉슨에게 맥거번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칼날을 선사하고 말았다. 둘째, 선거운동이 격해지면서 닉슨은 맥거번이 세 가지의 A를 찬성한다고 공격했다. 첫 번째 A는 마약(acid), 두 번째 A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사면(amnesty), 세 번째 A는 낙태(abortion)이다. 이 같은 세 가지의 A는 투표날 직전까지 수없이 반복되면서 맥거번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네거티브 선전의 근원이 닉슨 측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 가지 A를 처음 기사화했던 보수적인 언론인 로버트 노박이 지난 2007년 회고록(*The Prince of Darkness: Fifty Years Reporting in Washington*)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맥거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그에게 처음 전달한 자는 잠시나마 맥거번의 러닝메이트로 활동했던 미주리주 상원의원 토마스 이글턴이었다. 72년 대선에서 카터 역시 맥거번 반대(Stop McGovern)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민주당에서 맥거번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를 짐작케 한다. Hal Elliott Wert, *George McGovern and the Democratic Insurgents: The Best Campaign and Political Posters of the Last Fifty Year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5, p. 97. 한편, 맥거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72년 대선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줄곧 민주당은 탈(脫)맥거번을 시도하면서 신정치가 힘겹게 얻은 지지 세력, 즉 여성, 유색인종, 동성애자 등을 소외시키곤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당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집단이 당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뉴딜을 부인하면서 점차 우경화되었다. 민주당의 공화당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84년 대선에서 월터 몬테일이 레이전에 패배한 뒤 만들어진 민주당지도자회의(Democratic Leadership Council)가 있었다. 90년대 초반 클린턴이 회장을 맡기도 했던 이 조직체는 민주당을 노동, 환경운동, 흑인,

Ⅲ. 세금 반란과 서부로 간 레드넥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를 네 차례나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 줄곧 민주당 후보들을 위한 캠페인에 열성이었던 레이건은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현직 신분으로 출마한 민주당의 팻 브라운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는 백인 보수주의가 꿈틀거리면서 대두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격변이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백인 보수주의는 이후 10여 년가량 에너지를 응축한 후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면서 레드넥의 서부 이주를 촉진하였다. 계기는 바로 주민발의안 13이라는 세금 반란이었다. “백인 중산층이 일으킨 왓츠 폭동”²⁷⁾ 일컬어지는 주민발의안 13은 조세에 대한 “풀뿌리”²⁸⁾ 저항으로서 재산세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수정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주민발의안 13의 핵심적인 내용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assessed value)을 1975~76년 시장가격 수준으로 낮춘다. 둘째, 시가표준액 상승은 매해 2%를 넘지 않는다. 셋째,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1%를 상회하지 않는다. 넷째, 세금 인상을 위해서는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²⁹⁾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는 세금 반란은 백인 주

민권운동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목적으로 당의 친기업적인 엘리트들이 만들었다. Mound, “What Democrats Still Don’t Get about George McGovern”; Paul Street, *Barack Obama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2009], p. 6.

27) E. J. Dionne, *Why Americans Hate Politics*, New York: Simon & Schuster, 2004 [1991], p. 246.

28) Dan Berger, *Captive Nation: Black Prison Organizing in the Civil Rights Er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4, p. 237.

택 소유자들이 밀집한 샌퍼난도밸리 등의 지역에서 불붙기 시작해 197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번졌으며, 그 과정에서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 드라이브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보수주의의 “새로운 [정치적] 견본” 즉,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 기반한 보수주의 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³⁰⁾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백인 노동계급은 사실상 1930년대 이후 약 30년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였다. 특히, 1934년에 제정된 연방주택법(Federal Housing Act)과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혹은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은 백인 노동자들이 서버브로 이주하는 것을 가능케 했으며, 그들에게 중산층의 삶을 약속해 주었다.³¹⁾ 세금에 대해 이들이 애초에 지녔던 생각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로스앤젤레스아파트협회의 로비스트이자 반공주의자 하워드 자비스가 연방의회 상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1962년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패배한 이후 세금을 쟁점화함으로써 정계 진출을 노렸으나 결국 실패하였다.³²⁾

29)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Proposition 13: 30 Years Later,” June 2008.

30) Benjamin Schneider, “Looking Back at Howard Jarvis and Prop 13,” *SF Weekly*, October 8, 2020.

31) 연방주택관리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및 퇴역군인원호국(Veterans Administration)의 지원을 받아 1940년대 후반 건설된 레빗타운(Levittown)이 참전 용사들을 위한 서버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Nassau County)에 있는 레빗타운의 경우 어셈블리 라인을 활용한 대량생산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953년 인구가 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제법 커다란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단 한 명의 흑인도 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레빗타운은 완벽한 바닐라 서버브(vanilla suburb)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Lizabeth Cohen, *A Consumers’ Republic: The Politics of Mass Consumption in Postwar America*, New York: Vintage, 2004, p. 217.

32) 세금 반란에 대한 자비스 본인의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How-

훗날 세금 반란을 주도하게 될 자비스가 1960년대 초반 세금이라는 사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자본을 축적하고자 했으나 사정은 그다지 녹록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이 공공서비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세금 인상을 기꺼이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다.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라고 알려진 브라운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무료 시스템을 확장하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고속도로 및 상수도 시설의 상당 부분을 시공할 수 있었던 것도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³³⁾

70년대 접어들면서 사정은 천양지차로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위대한 사회’를 내걸었던 60년대, 정부와 국가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기꺼이 세금 인상도 받아들여야 했던 60년대와 달리 70년대의 미국은 “사기가 꺾인” 국가였으며, 도처에 미국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불확실성”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³⁴⁾ 정치에 대한 불신은 경제위기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 70년대 미국의 경제지표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악화되었던 두 추세, 즉 한편으로는 저성장, 실질임금 하락, 생활수준 침체, 탈산업화,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 주택 모기지 이자율 상승에 의해 하루가 멀다고 추락하고 있었다. 특히, 탈산업화는 백

ard Jarvis and Robert Pack, *I'm Mad as Hell: The Exclusive Story of the Tax Revolt and Its Leader*, New York: Times Books, 1979; Daniel A. Smith and Howard Jarvis, *Populist Entrepreneur: Reevaluating the Causes of Proposition 13*, Berkeley: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7.

33) Schneider, “Looking Back at Howard Jarvis.”

34) Daniel S. Traber, “L.A.’s ‘White Minority’: Punk and the Contradictions of Self-Marginalization,” in Stephen Duncombe and Maxwell Tremblay eds., *White Riot: Punk Rock and the Politics of Race*, London: Verso, 2011, p. 88.

인 노동계급으로부터 제조업체 일자리를 빼앗음으로써 이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었다. 통계에 의하면, 1972년과 1982년 사이 개인소득 중앙값은 무려 14퍼센트나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연방정부의 주택대출프로그램 및 제대군인원호법과 같은 정책들이 종결됨에 따라 백인 노동계급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주요 통로가 차단되고 말았다.³⁵⁾ 세금 반란의 진원인 캘리포니아는 경제위기의 파동이 가장 세게 감지되던 곳이었다. “마스터 빌더”의 아들 제리 브라운이 레이건에 이어 제34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던 1975년, 캘리포니아 드림으로 이야기되곤 했던 낙관주의는 새크라멘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했던 주택 가격이었다. 1970년 이후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택 중앙값은 무려 250퍼센트 이상 치솟았다. 1974년 4월에서 1978년 4월 사이만 보자면, 4년이라는 기간에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평균 집값은 37,800달러에서 83,200달러로 올랐다. 120퍼센트 상승이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 보았을 때, 1975년과 1978년 사이에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110.9퍼센트나 상승하였다. 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비례하기 마련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재산세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³⁶⁾

주민발의안 13은 세금 반란을 일으킨 백인 중산층에게 재산세 인하 내지는 동결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안겨 주었는지 몰라도³⁷⁾ 캘리포니아 전

35) Traber, “L.A.’s ‘White Minority,’” p. 88; Abramowitz and Teixeira, “The Decline of the White Working Class,” pp. 399~400.

36) Manuel Pastor, “After Tax Cuts Derailed the ‘California Dream,’ Is the State Getting back on Track?,” *The Conversation*, November 1, 2017; Dionne, *Why Americans Hate Politics*, p. 246.

37) 주민발의안 13은 금융 및 비즈니스 부문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세금 인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자본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탈산업화를 수반하는 플랜트 이주이다. 블루스톤과 해리슨이 주장하듯이, 자본 이탈은 이윤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노동을 통제하고 친(親)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체에 쓰디쓴 경험을 선사하였다. 이유는 주민발의안 13이 지방정부의 세금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 하방 경직성이 강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산정되는 재산세는 소득세 및 판매세와는 달리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세금이었다. 경기침체의 시기에 만약 주택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는 재산세 하락으로 귀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침체기에는 주택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재산세는 경제지표가 불안정한 시기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세금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소득세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에 해당했던 이러한 재산세가 주민발의안 13의 통과로 60퍼센트가량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³⁹⁾ 세금 징수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그리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레이건의 당선 이후 연방정부의 지원조차 대폭 삭감되면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지방정부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기감이 감돌았던 분야는 무엇보다 교육이었다. 캘리포니아는 학교 교육을 위한 지출 측면에서 1970년에는 전국 1위를 자랑했다. 하지만 주민발의안 13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1996년에는 41위로 추락하고 말았다.⁴⁰⁾ 주민발의안 13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1972~78년에 주정부

뿐만 아니라 이탈 전략은 자본이 세금 인하를 공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로 기능한다. 다른 장소로 플랜트를 옮기겠다는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대개의 경우 지방정부들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비용을 삭감하고 세금을 낮춤으로써 대응하였다. Barry Bluestone and Bennett Harrison, *The D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Plant Closings, Community Abandonment, and the Dismantling of Basic Industry*, New York: Basic Books, 1982, p. 18.

38) Preston Niblack and Peter J. E. Stan, "Financing Public Services in Los Angeles," in James B. Steinberg, David W. Lyon, and Mary E. Vaiana eds., *Urban America: Policy Choices for Los Angeles and the Nation*, Santa Monica, CA: Rand, 1992, p. 272.

39) Legislative Analyst's Office, *Common Claims about Proposition 13*, September 2016, p. 3.

40) Jennifer Tilton, *Dangerous Or Endangered?: Race and the Politics of Youth*

및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은 일자리 증가의 1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금 반란으로 재원이 고갈되면서 공적영역에서의 고용은 크게 수축될 수밖에 없었다. 실업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⁴¹⁾ 주민발의안 13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위기를 심화시키기도 했다. 지방정부들은 세금을 써서 낡은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은 외면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세를 거둘 수 있는 상업용 건물을 허가하는 데 점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급감이었다.⁴²⁾

1970년대 접어들어서야 공정주거권리법(*Fair Housing Act of 1968*), 대

in Urba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0, p. 142.

41) Edward Soja, Rebecca Morales, and Goetz Wolff, “Urban Restructuring: An Analysis of Social and Spatial Change in Los Angeles,” *Economic Geography*, Vol. 59, Issue 2 (1983), pp. 195~230.

42) Schneider, “Looking Back at Howard Jarvis”; Pastor, “After Tax Cuts Derailed the ‘California Dream.’” 주민발의안 13은 심지어 경찰의 치안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세금 반란 이후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은 재원 부족으로 인원 보충과 장비 보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통계 수치에도 잘 드러나는 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발발하기 직전인 1990년을 기준으로 로스앤젤레스에는 인구 1천 명당 경찰이 2.4명 있었다. 이 수치는 워싱턴 D.C.의 7.81명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으며, 뉴욕시의 3.67명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92년 폭동에서 로스앤젤레스가 방화와 절도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된 이유도 이러한 치안력의 상대적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발의안 13이 경찰에 미친 영향을 위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Patrick D. Joyce, *No Fire Next Time: Black-Korean Conflicts and the Future of America’s Cit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Susan Rosegrant, “The Flawed Emergency Response to the 1992 Los Angeles Riot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Case Program (C16-00-1586.0; C16-00-1587.0; C16-00-1588.0), Harvard University, 2000; William H. Webster and Hubert Williams, *The City in Crisis: A Report by the Special Advisor to the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on the Civil Disorder in Los Angeles*, Los Angeles: Office of the Special Advisor to the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October 21, 1992.

출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of 1974), 주택담보대출공시법(Home Mortgage Disclosure Act of 1975),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등 주거와 관련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⁴³⁾ 주민발의안 13이 제기되던 시점에 주택을 지니고 있던 자들의 상당수는 백인이었을 것이다. 보수주의 정치 세력들이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지렛대로 삼아 선동을 일삼을 때, 주택을 소유한 유권자들은 그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주민발의안 13을 지지했던 백인 주택 소유자들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되는 선동의 대상으로만 봐야 할까? 80년대 이후의 정치사는 선동으로 읽을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78년 주민발의안 13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물론 오랫동안 정계를 기웃거렸던 자비스라는 인물에 주목한다면, 주민발의안 13 역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되었던 여느 선동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자비스가 이끌었던 캘리포니아 세금 반란의 기본적인 동력은 풀뿌리 차원에서, 즉 노동계급 출신의 백인 중산층 사이에서 불만과 분노라는 형태로 응축되고 표출되었다. 레이건을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처럼 아래로부터 형성된 정치적 에너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것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유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⁴⁴⁾

자비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백인 중산층은 어떠한 레토릭으로 자신들의 반란을 설명했을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민발의안 13은 재산세 인하라고 하는 순전히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발의안 주창자들은 스스로를 가혹한 정부에 대항하는 인민(people)으로 묘사하였

43) Cohen, *A Consumers' Republic*, p. 221.

44) Schneider, "Looking Back at Howard Jarvis."

45) John D. Fairfield, *The Public and Its Possibilities: Triumphs and Tragedies in the American Ci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0, p. 264.

으며, 자비스는 종종 자신이 이끌었던 반란을 미국독립혁명의 신호탄이었던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에 비유하기도 했다.⁴⁶⁾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납세자 혹은 주택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자신들을 구분했다. 그들은 정부와 관료제를 규탄했을 뿐, 결코 인종적인 소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레토릭을 구사하지는 않았다.⁴⁷⁾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치사가인 크리츨로우가 주장하듯이, 세금 반란은 반(反)엘리트적이고 반(反)정부적인 정서를 사로잡음으로써 대중들이 지니고 있었던 불만을 표현한 정치적 대변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⁴⁸⁾ 심지어 흑인들조차도 세금 반란이 지니고 있던 이 같은 대중주의적인 레토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 가운데 무려 42퍼센트가 자비스의 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⁴⁹⁾ 나아가 주민발의안 13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불만과 분노라는 보수주의 언어는 카터 행정부 말기의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창궐했던 정부에 대한 불신 정서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공명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풀뿌리 대중주의적인 운동의 산물인 주민발의안 13이 왜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인종차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발의안의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주민발의안 13의 주창자들이 발의안을 제기한 동기는 인종에 의해 과잉결정되었다.⁵⁰⁾ 왜

46) David O. Sears and Jack Citrin, *Tax Revolt: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p. 15.

47) Desmond King and Rogers M. Smith, *Still a House Divided: Race and Politics in Obama's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p. 116.

48) Donald T. Critchlow, *In Defense of Populism: Protest and American Democrac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20, p. 162.

49) Dionne, *Why Americans Hate Politics*, p. 247.

나하면 재산세 인하를 겨냥했던 세금 반란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재정을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교적 부유한 학군 거주자들이 품었던 반감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⁵¹⁾ 발의안은 백인 중산층들이 납부한 재산세가 “자신들의 자식들”이 아닌 유색인종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분노에 의해 불이 붙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인종주의적 성격이 농후했다.⁵²⁾ 외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에 발의안의 하위 텍스트(subtext)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추악한 동기의 중심에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세금을 써서 지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파리를 틀고 있었다.⁵³⁾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중산층에 편입할 수 있었던 백인 노동계급은 대부분 유색인종들로 이루어진 가난한 사람들을 연방정부가 막상 세금으로 지원하려 하자, 이제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적 책임의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빈곤에 대해 지녀왔던 예전의 통념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걸어찬 셈이다. 나아가 흑인의 빈곤은 그들이 게으르고 노동윤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인 노동계급은 세금을 통한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흑인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낸 세금을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였다. 주민발의안 13을 구조화한 것은 이처럼 세금에 대해, 그리고 유색인종의 빈곤에 대해 백인 노동계급이 내면화하고 있었던 인종주의 언어였다.

남북전쟁 이후 1960년대 민권운동 시기까지 무려 한 세기가량 흑인과

50) Josh Sides, *L.A. City Limits: African American Los Angeles 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Pres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 194~195.

51)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Routledge, 2015, p. 215.

52) Pastor, “After Tax Cuts Derailed the ‘California Dream.’”

53) Schneider, “Looking Back at Howard Jarvis.”

백인 사이의 분리를 법적으로 정당화했던 짐 크로우식 인종주의와 달리 칼라 블라인드 인종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칼라 블라인드 인종주의는 미국 사회가 탈인종(post-racial) 시대로 접어들었기에 인종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둘째, 칼라 블라인드 인종주의는 소수계우대정책처럼 유색인종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도야말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자유주의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칼라 블라인드 인종주의는 미국이 능력주의 사회라고 강조하면서, 백인이 흑인보다 부유한 이유는 전자가 후자보다 근면하고 도전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⁵⁴⁾ 주민발의안 13으로 귀결되는 분노에 휘발유를 부은 것은 세금을 통한 사회복지 및 유색인종 지원 프로그램이란 결국 백인 노동계급이 세금으로 흑인 언더클래스를 보조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인식이었다.⁵⁵⁾ 그럼에도 발의안의 주창자들은 인종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목상 취지가 인종과 무관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960년대 중반 이후 등장했던 칼라 블라인드 인종주의의 문법을 충실히 따랐다.⁵⁶⁾ 백인 노동계급은 주민발의안 13 뒤에 숨겨진 이러한 인종주의 정치, 세금이라는 경제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에 의해 은폐된 인종주의 카드를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임으로써 발의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발생하였다. 즉, 예전에는 정부가 번영을 낳는 메커니즘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조직으로 점점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⁵⁷⁾ 그뿐만 아니라 레드넥으로 변신한 백인 노동계급은 경제적 개인주의 언어

54) 이찬행, 「칼라 블라인드: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 『서양사론』 120, 2014.

55) David A. Horowitz, *Beyond Left & Right: Insurgency and the Establishment*,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7, pp. 294~295.

56) Berger, *Captive Nation*, p. 237.

57) Schneider, “Looking Back at Howard Jarvis.”

를 통해 공공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의 확장에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곤 했는데,⁵⁸⁾ 이것이 결국 1980년대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내러티브로 자리를 잡았다. 1980년대 보수혁명과 ‘레이건 민주당원’의 형성은 이 같은 내러티브가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것이다.

IV. 맺음말

정치 지도자와 정치 제도에 초점을 두었던 노동사에 반대하면서, “가난한 양말 직공, 러다이트 직물공, ‘사양길의’ 수직포공, ‘유토피아적인’ 숙련직인의..... 열망은 그들 자신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했던 톰슨의 주장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다.⁵⁹⁾ 기존의 노동사는 정당, 노동조합과 같은 정치적 제도들과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에 주목하였지만, 톰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신노동사는 1960년대 이후 작업장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재구성하고자 했으며,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의 정치를 복원하고자 했다.⁶⁰⁾ 본

58) Sears and Citrin, *Tax Revolt*, p. 242.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백인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정부 지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수혜자가 인종적인 소수자인 경우 정부 프로그램의 축소와 세금 인하를 부르짖곤 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공적 프로그램의 확장에 대한 백인 노동계급의 불만과 반감은 매우 선택적이고 위선적이기까지 했다. Kasey Henricks and David G. Embrick, *State Looteries: Historical Continuity, Rearticulations of Racism, and American Taxation*, New York: Routledge, 2017, p. 60.

59) E. 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1966, pp. 12~13.

60) Laura L. Frader, “Dissent over Discourse: Labor History, Gender, and the

논문은, 비록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정치인들이 벌인 선동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의 경험이 낳은 현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역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미국의 백인 노동계급은 진보적일까? 아니면 보수적일까? 일반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백인 노동계급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정치사를 보았을 때 결코 진보적인 세력으로 보기 어려울 듯 싶다. 백인 노동자들의 인종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많은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⁶¹⁾ 인종주의는 그들의 탄생과 분리될 수 없는 태줄이었다. 그럼에도 백인 노동계급은 최소한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뉴딜연대의 핵심 세력으로 기능하면서 개혁적인 의제를 추진하는 데 한몫을 했다. 대공황 시기의 뉴딜은 존슨의 ‘위대한 사회’로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연방정부의 역할도 크게 늘어났다. 연방정부의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에 의해 백인 노동자들은 서버브 중산층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변화는 1960년대 중반 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부가 인종차별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없애려고 하자 남부 백인 노동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다. 설상가상으로 인종분리를 철폐하기 위한 정책들이 남부에서만 실시되리라고 생각했던 북부의 백인 노동자들도 ‘위대한 사회’가 북부에 존재하는 짐 크로우를 문제시하자 레드백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이 살펴보았던 맥

Linguistic Turn,” *History and Theory*, Vol. 34, No. 3 (1995), pp. 214~215.

61) 백인 노동계급의 인종주의와 관련해 이제 거의 고전이 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David Roediger, *Toward the Abolition of Whiteness: Essays on Race, Politics, and Working Class History*, London: Verso, 1994; David Roediger,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London: Verso, 1991; Alexander Saxton, *The Rise and Fall of the White Republic: Class Politics and Mass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London: Verso, 1990.

거버니즘과 주민발의안 13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백인 노동자들의 가슴에 ‘레이건 민주당원’증을 달아 주었다. 맥거버니즘은 민주당과 노동 사이의 관계를 절연시킴으로써 백인 노동자들이 공화당의 보수적인 담론에 포섭될 여지를 넓혔다. 나아가 중산층으로 진입한 백인 노동계급의 세금 반란은 재산세 인상 반대라는 비(非)인종주의적 언어를 통해 인종주의적 효과를 낳음으로써 80년대 이후 대두할 보수주의의 원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현대사는 민권운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아젠다의 확장 시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보수적인 흐름이 점점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던 이중적인 시기였다. 본 논문은 후자에 주목하면서 1960년대까지 리버럴한 정치 세력으로 간주되던 백인 노동계급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보수화되었는지를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 현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하여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낳았던 이른바 80년대의 보수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혹은 위로부터의 역사가 주장하듯이, 보수혁명은 레이건이라는 한 인물로 소급될 수는 없다. 그것은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창한 이데올로기의 결과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필자가 주장하려는 바와 같이, 미국의 보수혁명은 오히려 1960년대 민권운동과 민주당 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백인들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맥거버니즘과 세금 반란은 이러한 불만과 분노가 장기간에 걸쳐 응축되기 위한 필수적인 계기였다.

(2021.06.07. 투고 / 2021.07.19. 심사완료 / 2021.07.23. 게재확정)

[Abstract]

The Making of the ‘Reagan Democrats’:
History from below of the Conservatization of American White
Working Class since the 1970s

Lee, Chanhaeng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from below,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ervatization of the white American working class by analyzing their experiences and consciousness of the McGovern debacle of 1972 and California’s Proposition 13 in 1978 that started a nationwide *tax revolt*. George McGovern, a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fueled a flight of white working class Americans from the Democratic Party because his “New Politics” represented an alliance with “identity politics” and new social movements for the black, women, and homosexual communities. White workers were also increasingly outraged by heavy property taxes. In particular, those who successfully reached middle class status in suburban neighborhoods internalized the discourse of conservatism by opposing their taxes being spent on blacks and minorities who, they thought, were poor because they were lazy and lacked work ethic. In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government through the languages of economic individualism, the *tax revolt* provided the most fundamental political narrative for the conservative movement in the 1980s.

□ Keyword

Reagan Democrats, American White Working Class, Redneck, McGovernism, Proposition 13

[참고문헌]

- 이찬행, 「2016년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역설」, 『역사비평』 120, 2017.
- 이찬행, 「미국 우파에 대한 역사서술의 궤적」, 『서양사론』 129, 2016.
- 이찬행, 「칼라 블라인드: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 『서양사론』 120, 2014.
- Abramowitz, Alan and Ruy Teixeira, “The Decline of the White Working Class and the Rise of a Mass Upper-Middle Clas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24, No. 3 (Fall 2009).
- Ball, Howard, *The Bakke Case: Race, Education, and Affirmative Action*,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 Berger, Dan, *Captive Nation: Black Prison Organizing in the Civil Rights Er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4.
- Best, Steven and Douglas Kellner, *The Postmodern Turn*, New York: Guilford Press, 1997.
- Bluestone, Barry and Bennett Harrison, *The D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Plant Closings, Community Abandonment, and the Dismantling of Basic Industry*, New York: Basic Books, 1982.
- Carter, Dan T., *The Politics of Rage: George Wallace, the Origins of New Conservat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13 [1995].
- Carter, Dan T., *From George Wallace to Newt Gingrich: Race in the Conservative Counterrevolution, 1963~1994*,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 Cohen, Lizabeth, *A Consumers’ Republic: The Politics of Mass Consumption in Postwar America*, New York: Vintage, 2004.

- Cowie, Jefferson, *The Great Exception: The New Deal and the Limits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 Cowie, Jefferson, *Stayin' Alive: The 1970s and the Last Days of the Working Class*, New York: New Press, 2010.
- Critchlow, Donald T., *In Defense of Populism: Protest and American Democrac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20.
- DeKoven, Marianne, *Utopia Limited: The Sixties and the Emergence of the Postmoder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 Dionne, E. J., *Why Americans Hate Politics*, New York: Simon & Schuster, 2004 [1991].
- Dunn, Tasha R., *Talking White Trash: Mediated Representations and Lived Experiences of White Working-Class People*, New York: Routledge, 2018.
- Eaklor, Vicki, Robert R. Meek, and Vern L. Bullough, *Bringing Lesbian and Gay Rights into the Mainstream: Twenty Years of Progress*, New York: Routledge, 2006.
- Edsall, Thomas B. and Mary D. Edsall, *Chain Reaction: The Impact of Race, Rights, and Taxes on American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1992.
- Fairfield, John D., *The Public and Its Possibilities: Triumphs and Tragedies in the American Ci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0.
- Ferrence, Matthew J., *All-American Redneck: Variations on an Icon, from James Fenimore Cooper to the Dixie Chicks*,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2014.
- Frader, Laura L., "Dissent over Discourse: Labor History, Gender, and

- the Linguistic Turn,” *History and Theory*, Vol. 34, No. 3 (1995).
- Fraser, Steve, *The Limousine Liberal: How an Incendiary Image United the Right and Fractured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2016.
- “Gay Citizens for McGovern” (FMPP-019-001-p0042), Frank Mankiewicz Personal Papers, George McGovern 1972 Campaign,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 Greenberg, Stanley B., “Goodbye, Reagan Democrats,” *New York Times*, November 10, 2008.
- Harris, Adam, “The Supreme Court Justice Who Forever Changed Affirmative Action,” *Atlantic*, October 13, 2018.
- Henricks, Kasey and David G. Embrick, *State Looteries: Historical Continuity, Rearticulations of Racism, and American Taxation*, New York: Routledge, 2017.
- Horowitz, David A., *Beyond Left & Right: Insurgency and the Establishment*,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7.
- Huber, Patrick, “Rednecks,” Mississippi Encyclopedia, April 15, 2018.
- Huber, Patrick, “A Short History of *Redneck*: The Fashioning of a Southern White Masculine Identity,” *Southern Cultures*, Vol. 1, No. 2 (Winter 1995).
- Hunter, Allen, “The Role of Liberal Political Culture in the Construction of Middle America,”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Vol. 93, No. 1 (1987).
- Jarvis, Howard and Robert Pack, *I’m Mad as Hell: The Exclusive Story of the Tax Revolt and Its Leader*, New York: Times Books, 1979.
- Joyce, Patrick D., *No Fire Next Time: Black-Korean Conflicts and the*

- Future of America's Cit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 Katznelson, Ira, *Fear Itself: The New Deal and the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Liveright, 2013.
- King, Desmond and Rogers M. Smith, *Still a House Divided: Race and Politics in Obama's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Legislative Analyst's Office, *Common Claims about Proposition 13*, September 2016.
- Lichtenstein, Nelson, *State of the Union: A Century of American Labo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Maisel, Louis Sandy and Mark D. Brewer, *Parties and Elections in America: The Electoral Process*,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8.
- McWilliams, John C. and Paul Viotti, *The 1960s Cultural Revolu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0.
- Miroff, Bruce, *The Liberals' Moment: The McGovern Insurgency and the Identity Crisis of the Democratic Party*,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7.
- Mound, Joshua, "What Democrats Still Don't Get about George McGovern," *New Republic*, March 1, 2016.
- Niblack, Preston and Peter J. E. Stan, "Financing Public Services in Los Angeles," in James B. Steinberg, David W. Lyon, and Mary E. Vaiana eds., *Urban America: Policy Choices for Los Angeles and the Nation*, Santa Monica, CA: Rand, 1992.
- Omi, Michael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Routledge, 2015.

- Pastor, Manuel, “After Tax Cuts Derailed the ‘California Dream,’ Is the State Getting back on Track?,” *The Conversation*, November 1, 2017.
-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Proposition 13: 30 Years Later,” June, 2008.
- Radosh, Ronald, *Divided They Fell: The Demise of the Democratic Party, 1964~1996*, New York: Free Press, 1996.
- Reilly, Katie, “Calls to Reform Democratic Nomination Process Have Roots in 1968 Convention,” *Time*, July 25, 2016.
- Roediger, David, *Toward the Abolition of Whiteness: Essays on Race, Politics, and Working Class History*, London: Verso, 1994.
- Roediger, David,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London: Verso, 1991.
- Rosegrant, Susan, “The Flawed Emergency Response to the 1992 Los Angeles Riot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Case Program (C16-00-1586.0; C16-00-1587.0; C16-00-1588.0), Harvard University, 2000.
- Ross, Benjamin, “Democratic Misalliances,” *Dissent*, Spring 2003.
- Saxton, Alexander, *The Rise and Fall of the White Republic: Class Politics and Mass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London: Verso, 1990.
- Schneider, Benjamin, “Looking Back at Howard Jarvis and Prop 13,” *SF Weekly*, October 8, 2020.
- Sears, David O. and Jack Citrin, *Tax Revolt: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Sides, Josh, *L.A. City Limits: African American Los Angeles from*

- the Great Depression to the Pres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Silk, Leonard S., "The Blue-Collar Blues," *New York Times*, September 9, 1970.
- Smith, Daniel A. and Howard Jarvis, *Populist Entrepreneur: Reevaluating the Causes of Proposition 13*, Berkeley: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7.
- Soja, Edward, Rebecca Morales, and Goetz Wolff, "Urban Restructuring: An Analysis of Social and Spatial Change in Los Angeles," *Economic Geography*, Vol. 59, Issue 2 (1983).
- Stoller, Matt, *Goliath: The 100-Year War Between Monopoly Power and Democracy*, New York: Simon & Schuster, 2019.
- Street, Paul, *Barack Obama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2009].
- Thompson, Derek, "Bernie Sanders Is George McGovern," *Atlantic*, February 21, 2020.
- Thompson, E. 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1966.
- Tilton, Jennifer, *Dangerous Or Endangered?: Race and the Politics of Youth in Urba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0.
- Traber, Daniel S., "L.A.'s 'White Minority': Punk and the Contradictions of Self-Marginalization," in Stephen Duncombe and Maxwell Tremblay eds., *White Riot: Punk Rock and the Politics of Race*, London: Verso, 2011.
- Waxman, Olivia B., "'Violence Was Inevitable': How 7 Key Players

Remember the Chaos of 1968’s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Protests,” *Time*, August 28, 2018.

Webster, William H. and Hubert Williams, *The City in Crisis: A Report by the Special Advisor to the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on the Civil Disorder in Los Angeles*, Los Angeles: Office of the Special Advisor to the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October 21, 1992.

Wert, Hal Elliott, *George McGovern and the Democratic Insurgents: The Best Campaign and Political Posters of the Last Fifty Year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5.

Wiener, Jon, “Whatever Happened George Wallace?” *Dissent*, Summer 1977.